농식품 창업성장 지원 성과 '톡톡'

생진원, 착즙형태 과채음료 기술특허 획득 · 간편식 HMR 생청국장 매출 달성 등 도내 농식품기업 지원 사례 발표회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이 농식품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한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아, 지원받은 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생진원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전북도와 전북생물산업진흥원(원장 김동수, 이하 생진원)이 농식품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018년 시작한 농식품 창업성장 지원사업이 올해로 3년차를 맞아, 지원받은 5개사를 대상으로 지난 10일 생진원에서 성과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진원 비즈니스센터에 운영중인 화상상담장에서는 기업관계자 1인이 발표하고, 평가장에서는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5인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진행하는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됐다.

생진원의 창업성장 지원사업은 5년 미만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맞춤형 패키지 지원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R&D, 마케팅, 노무,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해 지원됐다.

군산에서 음료제품을 생산하는 (농)(주)담음(대표 김기옥)은 음료시장이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트렌드를 선도하고자 신선 과채음료 기술확보에 노력한 결과, 기존 착즙형태의 과채음료를 '마쇄' 음료라는 색다른 아이디어로 접근한 기술특허 획득에 성공했다.

마쇄음료는 원물의 섬유질 및 영양소를 고스란히 살려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창업 1년만에 올해 13억 원의 매출 달성과 1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군산지역의 새소득 작물로 육성중인 꼬꼬마 양배추를 연간 100톤 사용하는 등 지역과 동반성장을 이루고, 원물생산-가공-판로에 이르는 순환경제를 이룩했다. 현재는 이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신규브랜드 런칭과 함께 홈쇼핑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농)(유)소담식품(대표 소순곤)은 발아고추씨함유 막장 및 제조방법을 전북농업기술원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아 간편식 HMR 생청국장 제품과 먹기 편한 생청국장 KIT, 생청국냇또 제품을 개발했다.

이 회사는 지원사업으로 마케팅을 위한 홈페이지 제작과 포장개발, 카다로그 개발, 온라인, SNS 채널 활성화를 통해 올해 1.7억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남원지역의 지역사회 원료공급 체계를 확고히 하고 전통장류를 계승·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성원PCM(주)(대표 이재민)은 미세먼지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기관지 건강을 지키는 제품으로 도라지의 항염증 성분인 플라코타딘D를 8배이상 증진시킨 기술(국립농업과학원 특허, 2019.09)을 활용한 스틱제품을 개발했다.

본 제품의 홍보를 위해 동영상, 국·영문 홈페이지 등을 개발했으며, 특히 동영상에는 기관지 보호에 탁월한 효능을 홍보하기 위해 국악인을 모델로 채택한 점이 주요했다.

오픈마켓, 종합몰 입점을 준비함과 동시에 K쇼핑과 해외 홈쇼핑의 진출을 협의중이며, 올해 국내 매출 5억원과 고용 2명 증대의 성과를 달성, 동남아 수출도 올해 개시해 차츰 확대할 예정이다.

그 밖에 (농)(주)우리푸디스(대표 윤경숙)는 청국장 발효관련 다수의 기술특허를 보유한 기업으로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판매 증대에 따라 간편식 청국장과 묵 소포장 제품을 기획 HMR식 '인생청국장'과 1인용 도토리묵을 출시했으며, (농)향토자원개발연구소(대표 윤선희)는 독특한 마이크로 웨이브 생산기법을 활용한 쌀솜사탕(라이스볼)을 개발 '쌀이당' 브랜드를 런칭, 전주의 대표 로컬푸드화와 수출의 Two Track 전략을 추진중이다.

생진원 김동수 원장은 "코로나19 상황속에서도 창업성장지원사업을 지원받은 5개 기업들이 매출, 고용 등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성과에 대한 참여기업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지원예산의 증액 확보를 통해, 내년도에도 많은 창업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도내 청소년 사이클 선수 지원 앞장

LX, 전북도자전거연맹에 장비 전달

지역 상생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김정렬)가 전북지역 사이클 유망주 육성에 나섰다.

LX공사는 14일 LX 사이클선수단 단장(단장 오애리)과 전북자전거연맹 회장(회장 최병선)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사이클 선수들을 위해 전북자전거연맹에 사이클 장비를 전달했다.

지난 10월 고등학교 사이클 선수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멘토링 교실을 개최한 LX공사는 이번 전달식에서 도로와 트랙 사이클 18대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사용했던 장비를 지원하며 전북지역 사이클 유망주 육성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오애리 단장은 "전라북도 체육 발전과 사이클 유망주 육성에 힘을 보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체육 진흥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2006년 비인기 스포츠 육성과 친환경 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남자 사이클 선수단을 창단한 LX는 사이클 저변 확대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사이클 유망주 육성 교실, 자전거 지원 사업 등 재능기부와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김윤상 기자

LX공사는 14일 LX 사이클선수단 단장과 전북자전거연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지역 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사이클 선수들을 위해 전북자전거연맹에 사이클 장비를 전달했다.

대면·비대면 결합 '시너지효과' 창출

전북중기청, O2O로 수출지원서비스 '업그레이드'

원포인트 수출컨설팅 · 온택트 아카데미 '만족도 높아'

4차 산업혁명을 성큼 앞당긴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가 활기를 띄고 있지만, 종종 효과성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근, 대면과 비대면의 결합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O2O서비스 제공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안남우,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10월부터 수출지원사업 미수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대면과 비대면서비스의 결합서비스를 패키지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수출바우처사업 미선정기업 및 화상상담회 바이어 미매칭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컨설팅 및 비대면 아카데미를 함께 제공해 지역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는 지난 7월 화상상담회 개최 후 만족도조사에서 건의된 요청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현장 컨설팅을 제공해 기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원포인트 핀셋형 수출컨설팅), 온라인 쌍방향 교육을 통해 수출 강자로 키우는 것(수출의 달인 온택트 아카데미)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현장 컨설팅은 수출 전문위원이 기업을 방문하여 내수기업에는 수출 전략을 분석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수출기업에는 국가별 트렌드 분석으로 신시장 진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온택트 아카데미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본글로벌특강(10.30.)'에 이어 수출기업 신판로 개척 프로젝트 '신시장진출특강(11.26.)'을 진행했다. 교육의 특이사항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유튜브·줌을 활용하고, 기업의 성공담과 함께 실시간 질의응답의 장이 마련된 점이다.

안남우 청장은 "해외마케팅이 악화된 기업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 컨설팅을 시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비대면 특강을 제공하는 이번 사업은 만족도가 80% 이상으로, 향후 지원사업이 나갈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에는 상반기부터 기업 모집 예정이며, 요청사항을 반영해 지속적인 컨설팅·교육은 물론, 상시 교육자료 활용 지원 등 O2O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상 기자

한파에 신경써야 할 겨울철 농작물·시설물 재해 대비를

'20일까지 아침 최저 영하 16℃~3℃' 예보 따라

농진청, 온풍기 등 가온시설 수시 점검 등 당부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는 20일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6℃~영하 3℃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농작물·농업시설물·가축 등에 대한 겨울철 재해 안전관리를 14일 당부했다.

한파 지속될 경우, 과수는 저장양분이 부족할 경우 나무가 얼어붙는 언피해(동해, 凍害)가 우려된다. 따라서 과수나무 원줄기(대목 및 주간부)에 백색 수성페인트를 바르거나 보온재 등으로 감싸야 한다. 축산 사료작물은 파종 후 적절한 시기에 땅을 밟아 줌으로써 토양 속 수분이 얼어 땅이 부풀면서 발생하는 한발 피해를 경감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하우스에서 자라는 작물은 저온이나 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풍기 등 가온시설을 수시로 점검해 고장에 대비한다.

또한 추운날씨가 지속되면 가축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워 환경관리와 영양 공급에 주의해야 한다. 축사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통하는 틈새를 막아 가축이 찬바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축사 안쪽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전열 기구 등 전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누전이나 합선에 의한 사고위험이 높기 때문에 화재예방에도 주의 해야 한다.

시설물 관리도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폭설이 내린 지역은 비닐하우스 위의 눈을 빨리 치우고, 오래됐거나 찢어진 비닐은 바로 보수 또는 교체해야 한다. 폭설로 비닐만 파손된 시설하우스는 빨리 비닐을 씌운다. 뼈대가 휘어 지붕이 주저앉았을 경우, 시설하우스 내부에 기둥을 세우고, 작물 위에 소형터널을 2~3중으로 씌워 저온으로 인한 작물의 생육장해를 최소화한다. 비닐하우스 옆 배수로는 깊이 파서 눈 녹은 물이 안쪽으로 들어와 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한다.

대설·한파로 인한 저온장해로 작물 자람새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요소 0.2%액이나 제4종복합비료 등을 잎에 뿌려(엽면살포) 자람새를 촉진시키는 것이 좋다. 언 피해를 경미하게 받아 회복이 가능한 포장은 햇빛을 2~3일간 가려 주었다가 서서히 햇빛을 받도록 해준다. 피해가 심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파종(씨뿌리기)하거나 모를 길러(육묘) 아주심기 한다.

축사가 무너졌을 경우, 우선 가축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미지근한 물을 먹여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정충섭 과장은 "12월 중순까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10℃ 이하로 떨어지는 등 한파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설하우스 작물의 생육관리와 가축 한파 피해 예방 등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4기 모집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고객중심의 새로운 주거문화와 품질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주부모니터 4기'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부모니터 4기 모집은 전라북도내 거주하는 30세이상 60세미만 주부를 대상으로 27일까지 2주간 지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고, 최종 선발된 주부모니터들은 향후 2년 동안 전북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설계참여 및 품질점검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www.jbdc.co.kr)를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건설기술 심의 위원 후보자 공개모집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가 오는 21일까지 건설기술심의위원(이하 '심의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한다.

심의위원은 새만금개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구조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 등을 자문·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 분야는 ▲토목구조, ▲토질기초, ▲수자원·상하수도, ▲항만·해안, ▲토목시공 건설관리, ▲조경·환경 6개 분야로, 모집 인원은 총 40명,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강팔문 사장은 "심의위원은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등 건설공사의 안전 및 기술 수준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능한 건설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새만금개발공사 홈페이지(www.sdc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마지막 수업까지 잘 마무리"

진안 백운농협, 지난 6월부터 총 20회 걸쳐 '결혼이민여성 단계별 농업교육' 진행

진안 백운농협(조합장 신용빈)은 지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진행된 기초과정의 단계별 농업교육을 마치고 14일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속에서도 다문화 정착 지원교육인 농업정책 및 영농지원정책, 양성평등 및 가족관계 이해교육, SNS스마트폰 활용교육, 전통음식체험, 농산물 생산 유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정을 통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농촌 정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6개월간 진행됐다.

필리핀에서 온 마리(32)씨는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다른 이민여성분들과 농가주부 회원들의 도움으로 마지막 수업까지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 "무엇보다도 다양한 체험과 농업관련 공부, 특히 작물을 직접 재배하고 수확하는 과정을 함께 하면서 비로소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용빈 조합장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보다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북농협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지원을 위해 단계별농업교육, 1:1기초농업교육, 다문화여성대학,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정읍 신태인농협 '단풍고춧가루' 내년도 전북도지사 인증 획득

정읍시 신태인농협(조합장 김성주, 공장장 김규)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의 '단풍고춧가루'가 2021년 전라북도 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됐다.

전북도는 이번 '도지사인증상품' 17개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이 가운데 정읍시 신태인농협의 '단풍고춧가루'가 도지사 인증상품으로 선정되었다.

신태인농협에서 생산하는 '단풍고춧가루'는 정읍고추만의 단내 나는 매운맛과 향이 일품으로, 정기적인 영농교육과 GAP인증을 받은 관내 좋은 고추만을 엄선해 가공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